

주여, 내가 여기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함글함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_ 롬 12:15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 15:16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신년 특집 | 담임목사 인터뷰

세상 속에서 소망의 근거가 되어야 할 교회

2015년 새해를 맞아, 주님의교회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를 1년 동안 묵상할 표어로 정했습니다. <함글함글> 편집부에서는 1월 14일 오후 5시, 박원호 담임목사를 인터뷰하고,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교회와, 2015년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이 많았던 2014년이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누적되었던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이 구체적인 대형 재난으로 나타나, 우리 삶의 방식을 본질부터 되돌아보게 하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소회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모두들 힘들게 지낸 한 해였다고 기억합니다. 아직도 후유증이 남아 있는 상태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신앙적으로는 소망을 키워나가는 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의 여러 사건들은 사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체가 급성장하면서 성장을 강조하다 보니 마치 성장에 중독된 것처럼 앞뒤 돌아보지 않고 달려왔고, 그 결과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이제는 삶의 본질적인 면을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닐까 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도 성장 위주로 달려온 것이 사실이니, 교회 안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소망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책임이겠지요. 새해에는 소망을 키우려고 애쓰려 합니다. 주님의교회 역시

교회 자신이나 지역사회 뿐 아니라 세상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세상의 소망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지난 해 슬로건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였습니다. 갈등과 전쟁이 멈추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의 평화를 세상에 전하는 성도가 되자는 뜻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지난 한 해 충분히 성도들에 의해 내면화되거나 실천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구체적으로 점검해보고 평가할 기회는 따로 없었습니다.

> 2면에 계속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 1면에서

‘평화’는 성경의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잊기 쉬운 주제이고, 때로는 개인적 평안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의식적으로 작년의 주제를 통해 개인의 영역을 넘어 의식적으로 사회의 평화를 지향하고, 더 넓혀서 자연의 평화를 마음에 품기를 기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근본개념이기도 합니다. 점차 교인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입에 오르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강조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자리 잡히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평화에 대한 갈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평화’가 내면에 자리 잡은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제 넓은 의미의 평화, 특히 북한과의 평화에 대한 준비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활동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발표하신 표어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입니다. 이 표어를 묵상하게 되신 배경이나 동기가 있는지요?

“제 임기가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어 마무리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사명’은 그동안 추구해온 여러 주제를 통해 마지막에 강조되어야 할 주제였습니다. 그동안 올바른 신앙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사명으로 나아가야 할 때였기 때문이지요. 급성장한 한국 교회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대안을 찾고 신학적 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그 방향을 올바르게 잡지 못하면 교회가 방황하게 됩니다. 그 올바른 방향이 ‘사명’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회복을 가져오고, 사회적 영향력을 키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인데 이를 잃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명’은 그동안 추구해온 여러 주제를 통해 마지막에 강조되어야 할 주제였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회복을 가져오고, 사회적 영향력을 키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표어에 따라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실행하려 하는지요? 또한, 이 슬로건이 교회와 성도들에 의해 어떻게 실천되기를 바라시는지요?

“목회적 방향으로 사명을 향한 40일 예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가 개인에게나 교회에서나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배우고 말했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이 이 행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곧 겨자씨 모임에서도 사명이 강조될 것입니다. 겨자씨도 사명 없이 모이는 것과 사명 중심으로 모이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명을 중심으로 친교를 이루어 나가는, 세상적 친목이 아니라 사명의 친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설교가 중요한 방편이 될 것입니다.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강조될 것입니다. ‘사명’과 ‘소명’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는데, 흔히 ‘소명’은 목회자, 곧 부르심 받은 사람에게 쓰는 용어로 알고 평신도에게는 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두가 ‘소명’을 받은 헌신자라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평신도’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교회를 섬기는 소명을 받았다면, 교인들은 삶의 현장에서 섬기는 소명을 받은 것이지요.”

주님의교회가 올해 창립 27주년을 맞습니다. 주님의교회는 창립 이후 교회 본질의 회복을 위한 개혁적 제도를 만들고 지켜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개혁의 성향은 갈수록 희석되고, 여느 대형 교회와 다른없는 보수적 경향들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혹시 평소에 느끼시는지,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개혁적 성향’이라는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 자체가 개혁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성장의 틀이었던 개인 축복 중심의 신앙을 포기하자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식의 개혁이 따라가야 합니다. 성경 공부도 의식의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이지요. 교회개혁은 근본적으로 말씀의 개혁입니다. 말씀의 개혁을 빼고 제도나 법의 개혁을 따르는데 이런 경우 단편적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말씀의 개혁으로 돌아가야 하고,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개혁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정체 상태에 있는데 비해, 우리 교회는 지금도 성도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수평 이동이 많다 보니, 그 가운데에는 큰 교회에 가서 조용히 개인의 신앙생활만 유지하자는 익명의 교인도 많습니다. 봉사에 참여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것이지요. 이 한 분 한 분들이 교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앙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건물 무소유, 재정의 투명성, 50:50 정신 등의 개혁적 제도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밖에 나가면 이런 제도들을 같이 해보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안될 것 같지만, 해 보니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다른 많은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신을 보고 많은 교인들이 찾아오고 있고, 재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교회는 개혁적 성향 때문에 성장하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개혁 정신은 숫자적으로 대형이나, 소형이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여러 구성원에게 주시는 새해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부름 받은 사명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명을 많이 감당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질 것입니다. 교회에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경제적이든, 건강 때문이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은 취업난 시대에 직장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도 화목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글함글 정리

 신년특집 |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목회 칼럼

40일 사명자 대회 열린다

올해 사역의 주제인 ‘사명’의 실행 방안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2015년 사명자 대회’가 열린다. 1월 11일 오후 2시, 5층 제1 집회실에서 열린 사명자대회 준비 모임에 따르면, 올해 모든 교회 사역의 주제는 ‘사명’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특히 사순절 기간 약 40일 동안의 ‘사명자 대회’를 통해 집중 훈련 기간을 갖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교회 전체에 걸쳐 세 가지 중점 목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전교인을 대상으로 예수친구사역 1단계 훈련이 진행된다. 이를 위해 1단계 10강 내용을 6주 40일 과정으로 재편

하여 훈련하며, 이를 위해 40일 사명자대회용 교재가 편찬된다. 또한 겨자씨의 활성화화를 위해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의 형태로 40일 사명자대회의 리더 훈련이 시행된다. 마지막으로 겨자씨를 사명공동체로 변화하게 할 예정이다. 겨자씨 인도자를 중심으로,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사명을 함께 하는 공동체로 이끌어 나가도록 훈련한다.

40일 사명자 대회를 전후하여, 1월 제직수련회에서 ‘제직의 사명’이 강조된 후, 11월의 사역박람회에서 개인의 사명을 결단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기	일정	내용
1월	제직 수련회	제직의 사명 공유
2월 13~14일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부르심의 발견
2월 15일	서약식	부르심에 결단
2월 22일~ 4월 5일	사명자 대회	사명 다지기
사순절 기간		
4월 3일	성금요예배	십자가에 참여
4월 5일	부활절 예배드라마	부활에 참여
7월 23~25일	전교인 수련회	사명에 참여
11월	사역박람회	사명 소개와 결단

사명, 참 부담스러운 단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11:29-30)

사명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 나의 첫 느낌은...부담이다. 목회자로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명이라는 단어는 나에게 부담이다. 웬지 무엇인가를 힘써 해야 할 것 같고, 오직 그것에만 몰두해야 할 것 같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처절한 모습이 있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 그분은 철저히 이 땅에 사명을 위해 오신 분이시다. 그분의 삶은 오직 사명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그분의 탄생의 목적도, 삶의 목적도, 죽음의 목적도 오직 사명이셨다. 그분의 모든 삶이 사명에 충실한 삶이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처절하지가 않다.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삶을 즐기시는 듯하다. 물론, 십자가상에서 그분의 모습은 처절한 아픔의 모습이지만 삶의 순간순간에는 즐길 줄도 아셨다. 때로는 먹으셨고, 때로는 즐기셨다.

이를 본 대적자들은 그런 예수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눅7:34)라고 말한다. 표

준새번역을 보면 이는 먹보와 술꾼이라는 말이라고 한다. 물론 비난하는자들이 예수님의 행위의 참된 의미는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 예수님을 즐길 줄 아셨던 분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을 결국에 사명을 다 이루신다는 것이다.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한다...

2015년 사명에 충실하며 살고 싶다. 하지만 부담스러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여유와 즐거움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치열함보다는 함께 어울리는 즐거움,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 함께 무엇인가를 위해 헌신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 그리고 그러한 속에서 나의 사명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본다.

사명... 너무나 부담스러운 단어로 받아들이지 말자. 어쩌면 예수님의 말처럼 그분의 멍에는 쉽고, 그분이 주시는 짐은 실상 가벼운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지도 모른다(마11:29-30).

그렇다. 예수님처럼 즐겁게 사명을 감당하고, 2015년도가 마무리 되었을 때는 이런 고백을 하고 싶다.

“올 한해 즐겁게 사명에 헌신하였다.”

장수현 목사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69

月曆(월력)에 의한 節氣(절기)중 喇叭節(나팔절), 贖罪日(속죄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聖會(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火祭(화제)를 드릴지라. (레위기 23:24~25)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① 喇叭節(나팔절) : 民間曆(민간력) 정월 1일에 지키는 절기. 새해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다. 히브리 宗教曆(종교력)으로는 완전수인 7월이 정월에 해당된다. 나팔을 불어 기념하며 新年節(신년절)이라고도 한다.

② 贖罪日(속죄일) : 대제사장과 제사

장, 족장 이스라엘 백성 등 모든 사람의 죄를 회개하는 절기. 히브리력 7월 10일에 지켜졌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하는 유일한 날 이기도하다.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 喇叭(빠르게 할라. 나팔라): ‘말하다 또는 먹다’의 뜻이 있는 口(입 구)와 ‘날카로움’을 나타내는 刺(찌를 자)가 합쳐 ‘입으로 찌르듯 날카롭게 말을 하니 빠르다. 이처럼 빠르게 소리 내는 악기가 나팔이다’라는 글자가 되었다.

★ 叭(입 벌릴 팔. 나팔 팔): ‘말하다 또는 먹다’의 뜻이 있는 口(입 구)와 ‘나누다 또는 벌어지다’를 뜻하는 八(여덟 팔)을 합쳐 ‘말하기 위하여 입술을 나누어 벌린다. 이처럼 소리를 퍼지게 하는 악기가 나팔이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 節(마디 절) : 竹(대 죽, 대죽 머리)에 ‘나아가다’는 의미의 卽(곧 죽)을 결합시

켜 ‘대나무가 자라 나아갈 때 생기는 것이 마디이다’라는 의미를 만들었는데 절기, 예절, 절개, 풍류, 절약의 뜻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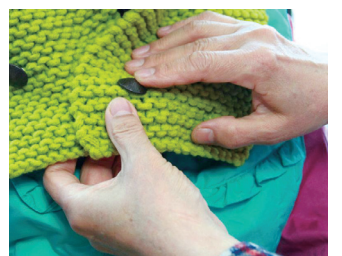
★ 贖(속죄할 속) : ‘돈이나 재물’을 뜻하는 貝(조개 패)에 ‘교역하다’의 뜻이 있는 賣(팔 매)를 결합시켜 ‘재물을 바치거나 자신을 노예로 팔아 죄 값을 속한다’는 의미의 글자가 만들어졌다.

★ 罪(허물 죄) : 网(그물 망)의 변형체 𦉳(그물 망 머리)와 ‘그릇되다’의 뜻이 있는 非(아닐 비)를 합쳐 ‘법의 그물에 걸려든 그릇된 행위가 허물이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 日(해 일. 날 일) : ‘둥근 태양 속에 三足鳥(삼족오)가 산다는 북방민족의 전설을 상형화’한 日 모양이 변하여 ‘삼족의 금 까마귀가 산다는 전설의 둥글고 밝은 천체가 해다. 이러한 해가 떠 있는 동안이 낮이다’라는 글자가 만들어졌다.

함글함글

섬기는 손 15



무더웠던 지난 여름날부터 한 코 한 코 펴서 준비한 160개의 털목도리 삼한사온도 사라진 차가운 겨울 날 따스한 사랑의 단추를 채우는 섬김의 손.

‘섬기는 손’은 사역 현장의 풍경을 담아 함께 하기를 권유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함글함글

신년 특집 | 2015년, 교회에 바란다

아이들을 위한 한 잔의 핫초코

‘을미년 새해를 맞아, 여러 세대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물었습니다. 경건에 대한 바람, 질서와 규칙에 대한 것, 어린이를 위한 공간과 음료, 그리고 무엇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들이 모였습니다. 이름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익명으로 수록했습니다.

함글함글

우리 교인들이 알아야 할 규칙들, 교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에티켓을 예배 전 화면에 공지해 주시면 좋겠다. 예컨대 예배 때 자리는 안쪽부터 앉기, 예배당에 물컵 가지고 들어가지 않기, 주차할 때 주차봉사자들의 통제에 협조해 주기 등.

민○○ 집사

학생을 위한 성경적인 진로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 청년부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의 고령화도 진행 중이다. 예배 중 쓰러지는 분들이 종종 계신다. 주일 예배 때에는 지하 중예배실 앞 양호실을 개방하고, 당직의료팀이 항상 대기하여 응급조치를 받게 해주면 좋겠다.

노대홍 안수집사

장애인과 노약자용 주차장을 그분들께 양보하는 미덕, 새해에도 계속되기를 바란다.

이민자 권사

고등부 전도사님 이었던 강현규 목사님 너무 좋다.... 더 바랄게 없다.

^^

서나영 고등부

아시는 분은 다 아시다시피 교회 3층을 올라가려면 2층에서 한숨 돌리고 올라가다 중간에서 한번 쉬고 3층 예배실로 들어간다.^^ 혹 예배시간이 늦을 경우 급하게 올라가면 예배당 들어가 숨을 몰아쉬게 된다. 2014년 3부 예배를 3층에서 안 내할 때, 항상 이른 시간에 한발 한발 정성스레 올라오셔서 맨 뒤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는 머리가 흰 할머니 (권사님이신 듯하지만 이 표현이 더 좋다)이 계셨다. 힘드실 듯해서 “본당에서 예배드리시지요?” 하고 권해 드렸는데 빙그레 웃으시며 괜찮다고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이른 시간에 정성스런 걸음으로 올라오셔서 기도를 드리신다. 그 분을 뵈며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내 자리는 어디일까, 라는 생각을 했다. 항상 급하게 왔다 갔다하면서 안정되지 않은 모습으로 무엇이 그리 바쁜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보다는 혹 다른 일에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아닌지..... 주일의 시작은 교회이니,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자리 나의 시간을 마련하자.

임목사님의 관심과 배려가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 아울러 교인들의 영성을 깨우치기 위하여 강사님들을 초빙하여 특새나 부흥회가 많았으면 한다.

○○○ 집사

어른들이 좋아하는 동글레차나 커피 말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핫초코 같은 음료도 제공해주시면 안 될까?

서동균 중등부

비슷한 직업군에 있는 직장인 멘토 프로그램이 교회 내에 있었으면 좋겠다.

○○○ 청년부

내부적으로는 소그룹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되고,



한발

한발 정

성스런 마음

과 몸으로 “아버지, 저여기 왔어요.”라고 조용히 말하는 2015년 시간을 꼭 만들자.

이승란 집사

부모님의 봉사를 기다리거나 할 때, 예배 후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운동장은 차량과 축구로 나갈 수가 없고, 다른 공간이 없어 아쉽다.

민주원 초등부

12단계 성경공부에서 선교에 관한 것이 한 단계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면 한다. 선교에 대하여 담

많은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외부적으로는 지역사회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 어두운 곳에 빛이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집사

엄마 아빠를 기다려야 하거나, 또는 교회에 남아 있어야 할 때 도서관을 이용할 경우가 종종 있는데, 도서관에 사람은 많고 자리는 없어서 서서 보는 경우도 있다. 도서관 공간 넓혀 주시면 좋겠다.

서나은 중등부

우리 교회가 몇 년 사이에 양적으로 부쩍 성장하면서 목사님과 성도들 간의 보다 깊은 만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목사님들께서 성도 개인과 가정의 내적인 삶을 주안에서 점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써 은혜가 충만해지고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믿음이 연약한 저같은 경우 목사님들과의 대면적인 교제는 기도와 말씀묵상 등 양육과 훈련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정○○ 집사

교회에 좋은 양육 프로그램들 중 12단계 성경공부를 온라인으로 말고 오프라인으로 듣고 싶지만, 수요일 저녁 예배시간은 저희처럼 집이 멀거나 하는 경우에는 참가가 힘들다. 물론 온라인으로 들어도 되지만 사실 그게 쉽지는 않고, 예배에 참여해서 직접 듣고 싶은데, 저녁 시간은 차도 막히고 멀고 하니 등록하고도 오기가 쉽지 않다. 오전에 12단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고○○ 집사

직장인을 위한 엠티나 세미나가 있었으면 한다.

○○○ 청년부

예배는 담임목사님 축도가 끝나면서 마치게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경건하기를 소망하며, 축도 중에 먼저 나오시는 분이 없었으면 한다.

정준호 안수집사

한 사람의 영혼도 소중히 여기고 관심을 갖는 교회, 소외된 성도와 이웃에 다가가 도움을 주는 교회, 진정한 복음이 수시로 전파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

서○○ 집사

사역소식

사역소식

장애인 선교 지도자 세미나



2015년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사랑의 교회 안성 수양관에서 1박 2일로 진행된 제19회 장애인선교 지도자 세미나에 사랑나무 가족들이 참석하고 왔습니다.

2015년 처음으로 사랑나무를 맡으신 권형준 목사님과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교사 11명이 참석하셨습니다. 같은 고민을 가지고 온 전국 사랑부 교사들과 찬양, 공과교육, 행동지원, 복지, 상담, 설교 등 각 주제별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

며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아주 유익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들의 사역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사명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사랑나무의 사역이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확장해가실지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도 사랑나무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김동민 전도사/사랑나무

바로잡습니다

지난 343호 2면 “제3회 생명나눔의 밤 콘서트” 제하의 기사 가운데 “윤인구 아나운서가 사회를 보았다”는 내용은 기자의 착오였음을 밝힙니다. 관계된 분들에게 사과 말씀 올립니다.

함줄함줄

2015년 어와나 성경퀴즈대회



2015년 1월 10일 서울, 경기북부, 강원, 제주 지역이 모여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한 고척교회에 천여 명이 모여 성경퀴즈대회가 열렸습니다.

어와나성경퀴즈대회를 통해 어린이들은 일년동안 공부한 핸드북의 내용과 성경암송을 점검받게 됩니다. 모인 지역에 있는 같은 또래 친구들과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평가받고 새로운 목표설정과 도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불티 어린이(7세~초2) 15명 코치 6명과 티앤티 어린이(초3~초6) 26명 코치 11명이 참석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불티는 금메달 6명, 은메달 7명, 동메달 2명이 받았

고 티앤티는 금메달 6개, 은메달 8개, 동메달 11개를 받았으며 그중에 불티 이건혁(9세) 어린이는 스카이스토머 부문 최고득점을 받아 많은 박수와 칭찬을 받았습니다. 퀴즈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시간을 쪼개어 교회에 모여 연습을 하고 1박을 하면서 서로를 알 수 있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계기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어린이들이 참석하여 말씀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어와나가 될 것입니다.

김현경 교사

정신학원에 깃든 한국기독교의 역사 11

학교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

1911년 일제는 조선 제1차교육령을 공포한다. 한국인에게 일본어를 습득시키고, 초보적인 실업교육에 치중하여 충성된 일본인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중등여학교의 이름은 여자고등보통학교로 했다. 그러나 정신여학교는 이 교육령을 따르지 않았다. 학교는 상급학교 진학이 제한된 각종학교로 되었다. 이름도 ‘정신여학교’ 그대로 유지되었다. 입학생수가 급격히 줄었고, 1912년, 1913년에는 졸업생을 내지 못했는데, 재학생들도 상급학교로 진학을 위해 다른 여자고등보통학

교로 전학을 갔기 때문이다. 1915년에는 개정사립학교 규칙을 공포하여 기독교 학교에 종교교육을 더욱 탄압했다.

1938년 3월 일제는 조선 제3차 교육령을 공포했다. 내선일체 등의 교육방침을 내세우고 조선어를 폐지하면서 황국신민교육을 실시하였다. 학교 관제를 일본 본국과 같이 보통학교는 소학교, 고등보통학교는 중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는 고등여학교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정신여학교는 총독부의 지시를 받는 여자고등보통학교가 아니어서 고등여학교로

되지 않고 정신여학교 교명을 계속 유지하였다.

그해 여름에는 신사참배 거부로 루이스 교장이 강제로 퇴임을 당했다. 1945년 3월 일제에 의해 강제 폐교되었다.

‘정신여학교’ 학교 이름은 일제의 교육령에 당당히 맞서 일제 압제의 중심을 관류(貫流)하며 기독교 신앙과 민족정기를 고취 시키

는 교육을 이끌어온 역사를 내포하고 있는 교명이다.

이희천 정신여고 교감



정신여학교 졸업등불 행사

새해,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올미년 새해를 맞아 목회자 10분이 주님의교회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따뜻하게 맞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새로운 사명으로의 부르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믿음의 한 가족 된 주님의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문안드립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성도님들과의 풍성한 교제가 가득하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 위해 헌신하는 알곡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심홍섭 목사/6교구, 해외선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마음을 다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창화 목사/9교구, 복지 사역

아이들을 통해 이루실 일



유치부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담쟁이 친구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권혜원 전도사 / 유치부

친히 쓰임 받는 구별된 도구가 되기를



하나님과 어린이, 책과 음악을 사랑하는 김세민 전도사입니다!

주님의교회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자라가며 주님의 손에 친히 쓰임 받는 구별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김세민 전도사 유년부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교회에서 새롭게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은 감사와 감격입니다. '예수님을 따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심'이라는 신앙관과 사역관으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새하얀 도화지같은 초등1부와 어와나 T&T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주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뿌리내리고 그 안에서 사랑으로 꿈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신주찬 전도사 / 초등1부, 어와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제가 뉴질랜드로 이민갈 때에 소년부 나이 때여서 그런지,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 시절이 새록새록 떠올라 즐거운 2015년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으로 아내 (방한나), 두 아들 (정이래, 정이든)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해 허락하신 귀한 소년부 아이들이 말씀으로 온전하게 성장하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겠습니다.

정원혁 전도사 / 소년1부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기쁨으로



우선 부족한 저를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소의 저의 소신은 기쁨으로 예배하자입니다.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 할 수 있는 소년2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기억나실 때마다 저희 소년2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우 전도사 / 소년2부

눈높이를 아이들과 맞추어



저의 목회 철학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WITH 곧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저 또한 아이들과 같은 눈높이를 맞추고자 애쓰려고 합니다. 날마다 내게 맡겨 주신 아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늘 그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같은 모습에서 아이들을 이해하고, 나아가 늘 그들 가장 가까이

에서 있는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2015년 올 한해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만남의 추억을 선물해 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임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 달려 갈 것입니다.

황재영 전도사 / 고등부

주님의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사역자



한국 교회 청소년 사역에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주님의교회 청사원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사원에서의 저의 사역을 통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생명을 살리는 교재가 집필되고, 사역자들에게 활력을 주는 세미나가 개최되고, 송파지역 청소년 문화축제를 잘 준비하고, 미자립교회 청소년들이 은혜받고 변화되는 수련회가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주님의 사역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아령 목사 / 청소년사역원

부르심 앞에 서있는 것만도 큰 은혜



아이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생각은 '하얀색의 캔버스처럼 깨끗하다'라는 것이예요. 이런 아이들과 '어와나'라는 이름으로 함께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입니다. 기대가 되고요, 부족하지만 사랑으로 지켜봐주세요.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을 키워내는 우리 어와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 마지막으로 어와나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이창규 전도사 / 어와나

추모의 글 | 고 김경신 장로를 기리며

낮은 곳에서 헌신했던 교회의 기둥



지난 1월 7일 교회장으로 천국 가는 길 모신 고 김경신 은퇴장로는 주님의교회 창립교인 중 한 분입니다. 교회 첫 걸음을 때는 날부터 헌신과 섬김으로 터전을 닦았던 고인의 발자취를 추모의 글에 담았습니다.

김경신 장로님은 만주 용정에서 1943년 5월 4일 아버지 김진국, 어머니 백병숙 님의 첫 딸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만주용정은 일제 식민통치를 피해 조국을 떠난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며 항일독립운동의 본거지였습니다. 김 장로님의 선친 김진국님은 운동주 시인과 문익환 목사님의 인척으로 한 동리에서 자랐으며 독립운동에 대한 사상도 공유하였습니다. 선친께서는 당시로서는 가기 힘든 미국유학을 하시었고, 학업을 마치고 만주로 돌아오셔

서 동지들과 항일독립운동을 하시다가 8.15 해방을 맞이하셨다 합니다. 해방이 되자 고국으로 돌아와 서울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봉직하셨으나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6.25 동란 중에 납북되는 비극을 당하게 되십니다.

여덟 살에 아버님이 납북되는 비극을 맞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인께서는 수도여자중고등학교, 서울대 사범대학 그리고 이화여대 대학원을 마쳤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여 당신 자신의 학비는 물론이고 동생들의 등록금까지 챙기는 맏딸이셨다고 합니다.

대학 졸업 후 창덕여고, 무학여고 등 여러 학교의 교사로 재직하시고, 청주대학교 예술대학의 교수로 봉직하시다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이제 잠깐 뒤 돌아 보자면, 고인께서는 평생을 남을 돕고 베풀면서 사신 분이셨습니다.

남편 김의수 집사님 역시 서울대사범대 교수로 정년퇴직하셨고 두 내외분이 대학교수직을 마친지가 여러 해 지났지만 아직도 정초가 되면 세배하려고 찾아오는 제자들이 너무 많아 현관에 신발 놓을 자리가 모자란다고 들었습니다. 두 분 김교수 님의 문은 항상 열려있었다고 합니다. 배고

픈 제자들이 허기를 채우고, 잘 없는 학생들이 쉬어가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잡히고 은행 빚을 내어 남편 제자의 주택문제를 해결해 주는 “스승의 부인”, 참 “사모님”이셨다고 합니다.

주님의 교회 창립 때부터 그 분은 참으로 큰 일꾼이셨습니다. 온갖 굵은일을 도맡아 하셨지만 말이 없으셨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여자 장로가 많지 않을 때여서 그 분은 주님의교회가 열린 교회요 앞서가는 교회임을 말해주는 징표였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서울대 사범대 출신의 장로가 5명이나 배출되었습니다. 같은 대학 출신 장로가 두 명이 되기도 드문 일인데 한 단과대학 출신이 5명이나 장로가 되는 일은 참 보기 힘든 기록일 것입니다. 김 장로님이 인도하여 우리교회 장로가 된 서울사대 출신 장로 네 분 중 한 분은 이미 믿은 분이셨고, 세 분은 처음으로 우리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예수를 믿은 분들입니다. 위에 예를 든 네 분의 장로 외에 그 동안 고인께서 주님의 교회로 인도한 사람의 수는 참으로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한 적이 없고 항상 먼저 손을 펴셨습니

다.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봉사과 헌신이 얼마나 있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30여 년을 가깝게 지냈지만 그분의 아버님이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것도 해방 전에 미국유학을 다녀오셔서 육이오 전에 서울고등학교의 영어교사를 하신 것도 도무지 몰랐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야 가족들이 알려주는 약력을 보고서 알았을 정도이니 이 사실 하나 만으로도 그분의 인품을 조금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기명 헌금과 예산의 절반 이상을 이웃사랑을 위하여 대외계정으로 사용하는 우리교회의 자랑스러운 유전자는 김 장로님의 행적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니 고인의 아름다운 행실 하나하나가 빠지지 않고 천국 기록에 올라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극한 영광중에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주님의 칭찬을 듣고 계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교회창립의 동지요 동행하던 천국 순례의 길동무를 먼저 보낸 우리의 슬픔이 위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김도묵 은퇴장로

꼬마인터뷰 | 송구영신 예배에서 해금 연주한 최남영 집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지난 날을 보내고 새 날을 맞는'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한 특별한 순서가 진행되었다. 국악으로 <나같은 죄인 살리신>과 <하나님 은혜>가 연주된 것. 서양의 음계를 연주하는 대금과 해금 소리가 숙연하게 예배당을 가득 채운 성도의 가슴 속에 젖어들었다. 이날 해금을 연주했던 최남영 집사를 만났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는데, 정신여중에 다닐 때 선배의 영향으로 국악에 매료되었고, 국립국악고에 진학하면서 두 줄이 있고 활로 켜는 악기인 해금을 전공하게 되었다.

주님의교회에서 결혼했으며, 공학을 전공한 부군과 여덟 살, 다섯 살 두 딸이 있다. 좋아하는 악기를 전공할 수 있었고, 원했던 학교에 다녔으며, 훌륭한 악단에서 연주 활동을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예쁜 딸들을 낳아, 주님 손에서 양

육할 수 있는 그이의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이날 연주했던 <하나님 은혜>를 가장 좋아하는 곡으로 꼽았다.

2부 찬양대에서도 봉사를 했으나 육아 때문에 쉬고 있다. 축망받는 젊은 국악인으로, 2013년에는 국립민속국악원 '젊은 풍류' 시리즈의 첫 번째 공연으로 <최남영의 해금> 연주회를 열었고, 현재 경기도립국악단 상임단원이며,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전수자이기도 하다.

이날 함께 연주한 대금 연주자는 주님의교회 성도가 아닌 초청 멤버였다. 오래전 주님의교회에서도 국악예배가 진행되었고, 잠시나마 국악부가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비록 작은 규모라도 국악찬양팀을 구성하여 전통음악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소망이다.

함글함글



🌸 아기나들이 : 2015년 1월 11일 4부 예배 김하진 아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아빠 김재우, 엄마 박수정 (2014년 8월 9일생)

찾습니다

국악팀 창단 멤버를 모집합니다.

국악기 연주와 찬양으로 믿음의 사역을 함께 할 성도를 모집합니다. 전통음악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 hamletter@daum.net 으로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함글함글**



2014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

사랑의 털모자 3차 전시회



사랑의 털모자 3차 전시회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5주에 걸쳐, 섬김과 나눔과 늘푸른대학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다. 지난 2012년 봄 늘푸른대학 뜨개질 반 학생들에 의해 시작된 사랑의 털모자 전시회는 2013년 2차 전시회를 열었고, 지난해부터 교회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하면서 명칭을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561명의 후원자가 새로 접수되었으며 후원금 26,630,254원이 모금되었다. 모여진 털모자와 기금은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기아대책기구를 통해 신생아와 국내 호스피스, 암환자, 독거노인 및 결식아동에게 전달, 후원될 예정이다.

정원영 안수집사

🕊 교회 단신

2015년 장로회 정기총회

1월 18일 주일에 장로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주님의교회 장로회는 시무장로, 은퇴장로, 협동장로, 사임장로로 구성되었으며, 2015년에는 회장 김창안 장로, 부회장 김한종 장로와 최재형 협동장로, 감사에 김우림 협동장로, 총무에 배익환 장로가 선출되었다.

함글함글

2015년 신년특별새벽기도회

2015년 신년특별새벽기도회가 1월 5일부터 9일까지 비전교회 담임인 정도출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새벽마다 진행된 이번 특별새벽예배에는 많은 성도가 참여하여 한 해를 특별한 은혜로 시작했다. 마지막 날 설교에서 특히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화롭게 되므로, 말씀 전파를 사명으로 삼고 생명 살리는 전도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함글함글

👤 알림

- ▶ 2015년 청년부 겨울수련회가 '비상'을 주제로 1월 29일에서 31일까지 설곡산 다일공동체에서 진행된다.
- ▶ 2015년 교사 힐링데이가 2월 8일 3시 30분 교회 중예배실에서 열린다.
- ▶ 두란노아버지학교 강남 43기가 1월 11일부터 2월 8일까지 3층 밀알실에서 열린다. 회비 12만원.
- ▶ 2015년 주님의교회 대내외 상반기 장학금 신청을 2월1일부터 2월 13일까지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1층 사무실에 문의.

💡 교회사역일정

- | | |
|-----------------------|--------------------------|
| 1. 25(주): 제직수련회 | 2. 6(금): 금요기도회 |
| 2. 1(주): 성찬주일 | 2. 9(월): 정기당회 |
| 2. 3(수): 공동의회(안건:예결산) | 2. 13~14(금~토): 겨자씨인도자수련회 |

신앙상담 ☎ 02-416-5183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